

17세기 볼로냐에서 나온 그림이다. 화가 크레스피는 신화와 《성서》 주제가 본령이지만 가끔씩 변덕스런 그림을 남겼다. 책장을 여닫는 보호 덮개 두쪽에다 실제 책장의 풍경을 실물 크기로 그렸다. 요행히 속지 않고 책장 문짝을 여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자칫 눈속임 그림에 손을 내밀어 책을 집으려는 사람은 옛적 그리스 화가 제옥시스가 붓으로 그린 포도송이를 보고 날아들었던 참새 처럼 어이없는 실수를 되풀이하기 십상이다. 덮개 그림을 열면 책들이 나타난다. 크레스피의 그림은 숨겨진 실체를 덮어주는 가면, 또는 보이지 않는 본질에 우의(寓意)를 씌워주는 상징, 또는 안에 든 것을 속속들이 비추주는 투명한 유리창이다. 아니, 이 모든 것이다.

#### 책장에 들어찬 기념비적 음악저작들

좌우 네단으로 짜인 책장에는 고대에서 1706년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역사를 절절했던 기념비적 저작들이 빼곡이 들어찼다. 첫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에 관하여》, 그리고 보에티우스가 둘째 자리를 차지했다. 아론, 베다, 조반니 마리아 아르투시, 로렌초 펜나, 르네 데카르트, 지롤라모 디루타, 빈첸초 갈릴레이를 모른다면 음악에 식견 있는 인문주의 모임에 선불리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아레초의 귀도는 단테 시대를 풍미했던 음유시인으로 더 알려진 인물이다. 그 사이 까맣게 잊혀진 이름도 있다. 지롤라모 칸토네, 키오디노, 리우오토로, 보노치니, 조반니 데 무리스, 바르톨리, 교황 요하네스 22세, 아리스티데 퀸틸리아노가 그들이다.

예언자나 성자들이 들고 있는 《성서》나 기도서가 신적 지혜와 종교적 구원사의 비밀을 가리켜 보인다는 사실은 17세기 이탈리아에서 모르는 화가가 없었다. 또, 서재의 히에로니무스나 에라스무스가 권 책이 학식과 지성의 힘으로 일귀낸 학자의 명예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 만한 상식이었다. 고대 연구에 기반한 인문학의 명예는 시공을 뛰어넘는 회화 예술의 신성에 기대서 죽음을 이기는 가치로 숭상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크레스피는 예언자도 인문학자도 그림에 그려 넣지 않았다. 오직 자연을 속이는 책장과 세월의 때가 진득하게 묻은 책들이 냄새나는 향기로운 정물화의 형식으로 등장한다. 책장의 의미는? 또, 하필 고대이래 음악사의 저작들만 골라서 망라한 까닭은? 또, 책장 문짝이라는 실용적 환경에 그림의 전시 가능성을 복속시킨 이유는?

#### 음악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말없는 웅변

왼편 맨 아랫단에 숨이 달린 파란 원뿔이 돌 놓였다. 잉크를 닦아서 말리는 도구다. 검정 잉크병이 그 옆에 놓였다. 깃털 펜이 비스듬히 기대 있으니 누가 악보를 그리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나 보다. 오른편 아랫단에는 악보가 펼쳐져 있다. 민승민승하게 꽃혀 있는 책보다는 이렇게 흐트러진 자세로 누운 책이 보논이의 시선을 끌게 마련이다. 책과 책들이 빠듯하게 어깨를 마주 대고 있는 따분하기 그지없는 책장 풍경에다 그나마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반가운 소재다.

악보 뒤에 밝은 색 휴대용 잉크병이 암전히 놓였고 그 옆에는 끝을 다듬지 않은 깃털이 한 묶음이나 마련됐다. 이 정도면 늘어지는 교향곡이라도 땀뻘 땀아낼 만하다. 아랫단의 정물 소재들은 음악의 역사가 쉽 없이 현재형으로 지속된다는 말없는 웅변이다.

니콜라우스 타우렐루스는 문짝의 의미를 두고 아름다운 해석을 내놓았다. 열어 쫓히고 닫아 잠그는 문짝의 기능이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두가지 인간 감각의 기능을 빚낸다는 것이다. 책을 펼치고 접어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눈과



주세페 마리아 크레스피, 《음악 책장》  
1725년 이후, 165.5×78/165.5×75.5cm, 볼로냐 시립 음악학 박물관

귀로 보고 들은 것을 기억에 간직해 두는 것을 가지고 책장과 문짝의 우의로 돌려 말했다는 것이다. 붓으로 그린 책장의 문짝을 열면 비로소 책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시선을 더듬어 책장의 악보를 펼치면 오선지의 선율이 귓전에 울린다.

얼마나 종교적인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울에 비친 실체를 통해서 실체에 비친 절대 실체를 감지했다. 크레스피는 문짝에 비친 책을 통해서 책에 비친 '책 중의 책'을 가리켜 보인다. 종교적 유비의 희미한 수수께끼가 가장 세속적인 정물의 모습으로 또렷하게 재현됐다. 크레스피의 그림이 수정 거울처럼 투명해 보이는 까닭이다. ●

노성두 | 미술평론가